서울주보

제2280호 2020년 4월 12일(가해)

주님 부활 대축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밤(날,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 부활 감사송 1 〈파스카의 신비〉 -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olleh tv 231번 / Btv 307번 / U+tv 274번

파스카 성야 미사

제 1 부 성야의 장엄한 시작, 빛의 예식
(불 축복과 파스카 초의 마련, 행렬, 파스카 찬송)

제 2 부 말씀 전례

제1독서 | 창세 1,1-2,2<또는 1,1.26-31ㄱ>

화 답 송 | 시편 104(103),1-2ㄱ.5-6.10과 12.13-14ㄴ.24와 35ㄷ(◎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2독서 | 창세 22,1-18<또는 22,1-2.9ㄱ.10-13.15-18>

화 답 송 | 시편 16(15),5와 8.9-10.11(◎ 1)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3독서 | 탈출 14,15-15,1ㄱ

화 답 송 | 탈출 15,1ㄷㄹㅁ-2.3-4.5-6.17-18(◎ 1ㄷㄹ)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제4독서 | 이사 54,5-14

화 답 송 | 시편 30(29),2와 4.5-6.11-12ㄱ과 13ㄴ(◎ 2ㄱㄴ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5독서 | 이사 55,1-11

화 답 송 | 이사 12,2-3.4ㄴㄷㄹ.5-6(◎ 3)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제6독서 | 바룩 3,9-15.32-4,4

화 답 송 | 시편 19(18),8.9.10.11(◎ 요한 6,68ㄷ)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제7독서 | 에제 36,16-17ㄱ.18-28

화 답 송 | 시편 42(41),3.5ㄱㄴㄷㄹ; 43(42),3.4(◎ 42〔41〕,2)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서 간 | 로마 6,3-11

화 답 송 | 시편 118(117),1-2.16-17.22-23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복 음 | 마태 28,1-10

제 3 부 세례 전례
(성인 호칭 기도, 세례수 축복, 물 축복, 세례 서약 갱신)

제 4 부 성찬 전례

영성체송 | 1코린 5,7-8 참조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입 당 송 | 시편 139(138),18.5-6 참조

제1독서 | 사도 10,34ㄱ.37ㄴ-43

화 답 송 | 시편 118(117),1-2.16-17.22-23(◎ 24)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또는 ◎ 알렐루야.)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2독서 | 콜로 3,1-4<또는 1코린 5,6ㄴ-8>

부 속 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 1코린 5,7.8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복 음 | 요한 20,1-9
<또는 마태 28,1-10 또는 저녁 미사에서는 루카 24,13-35>

영성체송 | 1코린 5,7-8 참조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생명의 말씀

비움의 부활 체험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 양천성당 주임 겸 제18양천지구장

'부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잠깐 눈 감고 떠오르는 것들이 뭔지 보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봄, 병아리, 부활달걀, 토끼, 개나리, 노란색, 부활초 등 뭔가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고 꽉 차 있는 이미지들이 눈에 선합니다.

왠지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 근처에 갔을 때 무덤 문을 박차고 예수님이 '짜자~ㄴ' 하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하셔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부활 이미지! 음?! 그건 아무래도 슈퍼맨의 이미지 아니냐고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진심을 털어놓자면, 마리아 막달레나와 베드로와 요한이 체험한 '부활 체험', 곧 '빈 무덤 체험'은 저에게는 어쩐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영광으로 꽉 차고 넘쳐야 할 '부활 체험'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텅 비어 있는 모습에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빈 무덤을 보고 곧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는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달려간 마리아 막달레나, 또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는 즉시 주님의 부활을 믿은 요한과 베드로! 이들은 과연 빈 무덤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본 것을 저는 왜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문득 이번 사순 시기의 첫날인 재의 수요일 복음 말씀이 떠오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마태 6,1) 그러면서 자선, 기도 및 단식에 힘써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남들한테 드러나지 않게 자선이나 기도나 단식을 실천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단식에 대해서 성찰해 보자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참으로 유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 주고, …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이사 58장 참조) 단식은 단순히 굶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이나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빈 무덤'은 온갖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비워진 우리의 내면을 나타냅니다. 부디 이번 부활절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온갖 욕심과 집착들로부터 해방된 우리 '빈 무덤'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콜로 3,4)

사진 설명

밀이 영글면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추수를 앞둔 밀밭을 보며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김문숙 요셉피나 | 가톨릭사진가회

말씀의 이삭

장경희 루치아
장애인주일학교 자모회, 명동성당

미안, 엄마가 더 노력할게

"바보같이 그걸 왜 못해!"

아이가 제 눈을 빤히 봅니다. '아차, 또 말실수!'

제 속에 쌓아온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인 편견이 작동하는 데는 0.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무심한 말에는 날 선 반응을 하지만 정작 제가 내는 일상의 말을 깨닫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반성을 거듭하지만, 차별의 감각은 깊게 숨어 있다가 뜻하지 않은 순간에 튀어나옵니다. 제 아이는 자폐성 발달장애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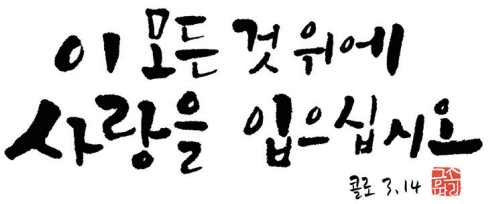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며, 누구의 잘못으로 저렇게 태어났는지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요한 9,3) 아이의 장애가 제 탓이라는 죄책감으로 짓눌려 있을 때,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향한 죄의 무게를 덜고 아이를 향한 안타까움이 잠잠히 가라앉고 난 후, 저는 '하느님의 일'이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미사 봉헌은 매주 겪어내야 하는 숙제 같은 것입니다. 조용한 숲속에서 갑자기 새가 울며 날아오르듯, 또는 잔잔한 호수 위에 느닷없이 던져진 돌멩이가 일으키는 파문처럼 뭇 시선을 사로잡는 아이의 몸짓 때문입니다. 미사라는 거룩한 예식에서 아이의 행동은 얼마만큼 허용되는 것인지 매번 고민하곤 합니다. 때로 그러한 걱정을 하는 처지가 화가 나서 아이를 지나치게 다그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미사 내내 불편하던 저의 마음을 녹여내는 기적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성체를 모시기 전 서로에게 건네는 평화의 인사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미소로 인사를 나누는 행위는 서로가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뜻이지요. 이로써 저에게도 평화가 찾아오고 '하느님의 일'이 드러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용기를 내어 아이와 함께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모습과 처지,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장애인인 이 아이에게도, 이주노동자에게도, 난민에게도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십니다. '하느님의 일'이란 '가장 작은 이들'(마태 25,40)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동정과 연민을 넘어서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것입니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아직 저는 종종 뿌리 깊은 차별의 언어로 아이를 속상하게 만들지요. 오늘도 눈과 귀와 입, 그리고 마음의 겸손을 청해 봅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이배은 그라시아
쑥고개성당

코로나19 관련 특별 대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병자들, 의료진과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전대사를 수여하셨습니다.

요약문

전 세계적 질병 확산의 현 상황에서 신자들에게 특별 대사를 수여하는 교령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신자들에게는 전대사가 수여된다. 보건 당국의 명령으로 병원이나 자택 격리 상태에 놓여 있는 신자들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미사성제의 거행이나 묵주기도 또는 십자가의 길이나 다른 형태의 신심 실천에 영적으로 하나 될 때에, 또는 적어도 신경과 주님의 기도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경건한 간구 기도를 바칠 때에, 전대사를 받게 된다. 이때에, 하느님을 믿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련을 봉헌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대사의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고 하신 거룩한 구세주의 말씀에 따라,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본받으며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바이러스에 시달리는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 종사자와 가족과 그 밖에 모든 이**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을 채울 때에, 전대사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또한 내사원은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전능하신 하느님께 이 **전염병 확산의 종식,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위로, 주님께서 당신께로 부르신 이들의 영원한 구원을 간구하고자,** 성체 조배나 적어도 30분 이상의 성경 봉독, 또는 묵주기도나 십자가의 길이나 하느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을 채울 때에 기꺼이 전대사를 수여한다.

교회는 **병자성사를 받을 수 없고 노자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인들의 통공에 힘입어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 드린다. 또한 **임종의 순간에 놓인 신자들**이 올바른 자세를 지니고 살아오는 동안 습관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바치기만 했다면(이러한 경우에 전대사에 요구되는 세 가지 일반 조건은 교회가 채워 준다.), 교회는 이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한다. 이러한 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십자고상이나 십자가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대사 편람」[Enchiridion Indulgentiarum], 12항 참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무기한 중단

교구는 지난 3월 25일, 코로나19 현 상황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일에 맞춰 4월 6일부터 미사를 재개하도록 추가 연기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준비를 위해 안내 공문 및 지침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3월 31일, 학생들의 등교를 무기한 연기하며 온라인 개학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교구는 미사 재개의 어려움과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4월 1일 임시 사제평의회를 비상소집 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는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중단합니다.
2. 미사 재개를 전제로 했던 주님 부활 대축일 전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는 취소됩니다. 단, 개별고백을 통한 부활 판공성사는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까지 유효합니다.
3. 성유축성미사는 사제평의회 위원만 참석하도록 합니다.
4. 성주간 전례와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가톨릭평화방송(생방송, 유튜브)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5.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묵주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96년 4월19일 신인균 요셉 신부(91세)
- 2003년 4월18일 한희동 그레고리오 신부(68세)

가톨릭평화방송TV 주님 부활 대축일 특별 생중계

▶ **12일 주님 부활 대축일**
명동대성당 미사(정오 / 재방송 오후 8시)
바티칸 미사(오후 4시 45분 / 재방송 오후 11시)

▶ **평일 미사**
TV 오전 6시, 9시 / 정오 12시 / 오후 6시, 9시20분
라디오 매일 오전 5시, 오후 6시5분
유튜브 'TV 매일미사' 검색

서울주보 카카오톡 채널 개설

서울주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발행되는
서울주보와 **교구소식**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 채널 QR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TALK → 카카오톡 실행하기 → 검색창에 채널명 입력하기 → + 채널 추가하기

Ch 서울주보 +

2020년 부활 메시지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분과 함께
배에 있으면
난파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르 4,35-41)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좋은 계절에 우리는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봄은 아직 멀리 있고 부활의 기쁨을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의 먹구름이 온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투신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갈망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인내와 희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민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미사의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피치 못할 가슴 아픈 결정이었습니다.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고 성체도 영하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신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홀로 미사를 지내며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 써주시는 신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신자와 함께하는 미사 중단

이 길어지면서 영적인 고통이 커갔지만, 그 고통 안에는 축복도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은 사제를 그리워하고, 사제들은 신자들을 더욱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라났습니다. 이 마음이 계속되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이 깊어지고 일상이 은총임을 깊이 깨달아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창세 2,17; 3,3.19). 죄의 결과인 죽음은 인간에게 "영원한 소멸의 공포"(사목헌장 18항)를 안겨 줍니다. 모든 것을 무(無)로 되돌려놓는 죽음 앞에서 사람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운명에 처하여 두려움과 절망의 굴레에 갇힌 인간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부활로써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굳건히 믿고 충실히 따르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이 약속을 믿고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로마 7,24-25)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약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넘어선 희망을 선사해 주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주님은 빛이 충만한 시간만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한 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루카복음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어둠의 시간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길을 가던 제자들에게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시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이끌어주십니다(루카 24,13-35).

현재 우리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이 날지 몰라 많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를 곁에서 동행하십니다. 그분께 우리를 맡기면 두려움을 이기고 희망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지난 3월 27일 '인류를 위한 특별 기도와 축복' 예식에서 주님께 의탁하여 두려움을 이겨내자고 다음과 같이 호소하셨습니다. "옛적의 뱃사람들에게 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십시다! 우리 두려움을 주님께 넘겨드려, 그분께서 이기시게 합시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분과 함께 배에 있으면 난파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마르 4,35-41). 하느님의 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악한 일들조차 선으로 바꾸

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돌풍 속에 고요를 가져다주십니다. 하느님과 함께라면 생명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아울러 그분은 우리가 서로에게, 특히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가장 먼저 약하고 가난한 이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교황님께서도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 독거노인, 병원에 입원한 사람, 봉급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모르는 부모 등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미 본당, 기관, 단체, 수도회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도움의 손길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대축일 며칠 후에 제21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들, 무엇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엄중해도 작은 희망이라도 보이면 견뎌낼 힘을 얻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의 삶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펴가는 데에 우리 모두 마음과 힘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곁에 머물도록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28,5.10)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희망을 간직하고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서로를 배려와 사랑으로 대하면서 이 시련의 시간을 잘 견디어 나아갑시다.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시도록 전구합시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 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염수정